



소진공, 직원 대상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전남 재능교육연수원에서 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이번 교육은 디지털 전환 트렌드에 맞춰 공단 직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AI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습득해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에서 63.7%의 수치로 디지털 교육의 수요가 높게 나타나 이를 반영했다.

해당 교육은 8월 1회차 교육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5차례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생은 회차별 40명 내외로 총 200명 규모다.

교육내용은 △ChatGPT 및 파이썬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교육 △외부 데이터 분석을 위한 엑셀 교육 및 실습 △데이터 시각화 방법 교육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단계 진행 등으로 진행된다. **나다운 기자**



전남도의회-전남농협, 쌀 소비 촉진 캠페인

전남도의회는 12일 전남농협과 함께 '전남 쌀 소비' 장려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국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4kg으로, 이는 하루에 밥 한 공기 반(약 155g) 정도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전남농협은 쌀 소비량 감소 및 쌀값 하락에 적극 대응하고자 관계기관, 기업체, 단체와 함께 '전남 쌀 소비촉진'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김태균 의장은 "쌀 생산량보다 소비가 더 빠르게 줄어드는 등 농촌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전남은 항암 기능성 쌀 개발·재배부터 혈당 강화, 노화 방지, 면역강화 쌀 등 다양한 품종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가는 소득을 올리고, 국민은 건강을 확보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지 바란다"며 "전남의 우수한 쌀을 널리 알려 더욱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전남도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가정 나들이 행사 실시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김재춘)는 지난 10일 광주 지역 위탁부모 및 아동 총 44명을 대상으로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위탁락(落)에서 즐기는 락락(樂樂)페스티벌!" 가족 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

이번 가족 나들이는 나주 소재의 위탁파크에서 △물놀이 체험 △레크레이션 활동 △가족사진 액자 제작 등 다채로운 활동들로 구성됐다.

한편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가정에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가족 간의 친밀감을 증진시키고,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위탁가정 가족나들이 프로그램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탁가정 정서강화 지원, 위탁가정 힐링캠프, 친해지기 서비스, 부모 교육 등 위탁가정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주위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위탁부모가 되고자 희망하는 분들은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062-351-1206)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기 자**



해양에너지, 지역청년 12명에 일경험 제공

해양에너지는 상반기에 이어 광주시 청년 일자리 정책인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 16기 드림터로 참여, 12명의 드림청년을 선발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사진)

광주청년일경험드림 사업은 광주시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광주지역 거주 청년층의 직장경험과 기업의 구인매칭을 통한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광주 대표 청년 일자리사업이다. 해양에너지는 지역기업으로서 지역일자리창출과 청년고용문제해결에 기여하고,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참여, 이번 16기까지 총 69명 드림청년에게 일경험을 제공했다.

이번에 선발된 12명의 드림청년은 8월초부터 오는 12월까지 5개월 근무를 통해 직장경험을 수행하게 된다.

해양에너지는 지역인재육성과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박소영 기자**



광주신세계, 지역 아동 위한 사회공헌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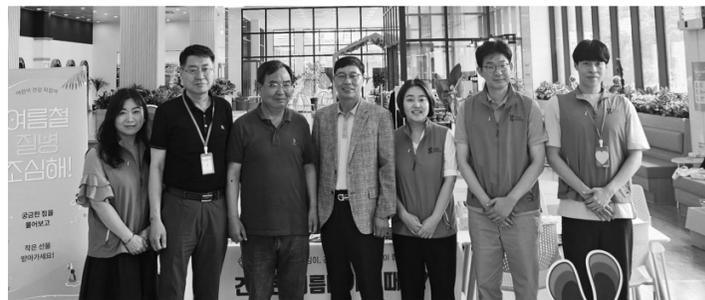
광주신세계가 지역 아동들이 다양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드론과 클라이밍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사진)

지난 11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현지법인으로 지난 29년 동안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 등을 진행해 온 광주신세계는 앞으로도 지역에 도움이 되는 상생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광주신세계 임직원 봉사단은 지난 9일 오후 광주 북구 드론스포츠파크에서 스포츠 체험 데이를 운영했다. 이날은 광주신세계 봉사단 20여명과 지역에 거주 중인 아동 50명이 드론 날리기와 실내 클라이밍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했다.

그동안 지역 아동들을 위해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온 광주신세계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고민한 끝에 드론 및 클라이밍 체험을 준비하게 됐다.

특히 아동들이 미래 기술로 주목받는 드론을 체험하며 자신만의 꿈을 펼칠 수 있기를 응원했다. **나다운 기자**



키즈라라·심평원 광주전남본부, 어린이건강지킴이 활동

화순 어린이테마파크 키즈라라(대표이사 문팔갑)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전남본부(본부장 김창호, 이하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7일 유아·초등생과 가족 40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건강상담실 운영 및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사진)

이번 활동은 지난 2023년 11월 양기관이 체결한 지역상생 및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됐

며, 광주전남본부는 여름철 주요 질병 어린이 건강상담실 운영 및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 등 여름철 건강정보를 안내했다.

이와 더불어 참가자를 대상으로 △DUR(의약품안전사용) 서비스 △내가 먹는 약, 한 눈에' 서비스 △진료비 확인 서비스 △온라인 출생 신고 등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대국민 서비스 홍보활동도 펼쳤다. **최권범 기자**



전남도교육청, 튀르키예 학생 초청연수 성료

튀르키예 지진 피해지역 고등학생들이 전남도교육청의 환대 속에서 12주간의 단기 초청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난 10일 본국으로 돌아갔다. (사진)

지난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에는 튀르키예 6·25 전쟁 참전용사 후손으로서 지진 피해지역 고등학교 1, 2학년 여자 재학생 16명과 인솔교사 2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돈독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학생들은 튀르키예 6·25전쟁 참전용사 후손으로서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 방문해 참배하고, 선인들을 기리는 시간도 가졌다. 또 여수정보과학고의 정보 분야 직업교육 조리교과 실습수업에 참여하며 'K-푸드'의 대한 관심을 높였다. **강주비 기자**



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고려인마을 후원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8일 광주시 월곡동에 있는 고려인 마을을 찾아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광주 고려인마을은 올해 1월 국내 이주 고려인 동포 노인돌봄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소했으나 운영상 어려움을 겪어왔다. 후원금은 노인돌봄센터 급식소 운영비(쌀, 부식 구매 등)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고려인마을 어르신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 보행자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했고 어르신들을 위한 교통안전물품(보행보조 지팡이)을 전달했다.

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광주 고려인마을 어르신들의 식사 및 교통사고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됐으면 바란다"며 "앞으로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2NE1, 10년7개월 만 단독 콘서트... 1회 추가 확정

올해 데뷔 15주년을 맞은 2세대 대표 걸그룹 '투에니원(2NE1)'이 10년 7개월 만에 예고한 단독 콘서트로 인기를 확인 중이다.

12일 매니지먼트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2NE1은 오는 10월4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2024 2NE1 콘서트 '웰컴 백(WELCOME BACK)' 인 서울'을 1회 더 열기로 했다. (사진)

앞서 5~6일만 같은 장소에서 콘서트를 열기로 했으나 앞서 연 예매에서 40만명 이상의 동시접속자수를 기록하는 등 단숨에 매진을 기록하면서 추가 회차 오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서울 콘서트는 총 3차례 열린다.

2009년 YG엔터테인먼트에서 데뷔한 2NE1은 개성 강한 그룹으로 '내가 제일 잘 나가', '아이 돈트 케어' 등의 히트곡을 내며 톱그룹 반열에 올랐다. 월드투어를 두 번이나 돌았으며 2014년 앨범 '크러시'로 미국 빌보드 200에서 6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2016년 4월 공민지가 팀을 먼저 탈퇴했고 같은 해 11월 해체를 결정했다. 2017년 1월 마지막곡인 '굿바이



(GOOD BYE)' 음원을 내놓았다. 이후 네 멤버는 계속 교감해왔고 올해 양현석 YG 총괄 프로듀서와 2NE1에 대해 상의하며 공식적인 재결합이 성사됐다.

2NE1은 서울 콘서트를 시작으로 11월 말 일본 고베 월드홀, 12월 초 도쿄 아리아케 아레나로 발걸음을 옮긴다.

서울 추가 공연 일만 예매는 오는 21일 오후 8시부터 인터파크 티켓에서 가능하다. **뉴시스**